

LG하우시스, 중국 건축자재 공장 착공

6000만달러 투입 고기능 소재 · 부품도 생산 ... 2015년 매출 6억달러

LG하우시스가 중국에 2번째 건축자재 공장을 건설한다.

LG하우시스는 9월28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서 한명호 대표와 마오시아핑 시장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시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.



LG하우시스는 21만5000㎡(6만5000평)의 부지에 6000만달러를 투입해 건축장식 자재 공장과 연구개발센터, 고기능 소재 · 부품 공장을 건설하고 바닥재, 자동차 원단, 진공단열재, 기능성 점착소재 등을 단계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.

LG하우시스는 1997년 텐진(Tianjin)시에 생산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.

LG하우시스는 급증하는 중국 내수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 전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북지방에 이어 화동지방에 공장을 건설하게 됐다고 투자배경을 설명했다.

한명호 대표는 기공식에서 “2015년까지 중국에서 6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키우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9/29>